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성은⁺⁺ · 허수연⁺⁺⁺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본인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대 수준 충족에 따라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기대수준은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 내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패널조사 5차년도 참여자 중 맞벌이를 하고 있는 285 가구의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과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직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에만 남편의 주말 양육참여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맞벌이 가정에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에 대한 협상력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맞벌이 부부,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 결혼만족도

※ 논문투고일 - 2020. 12. 31. 심사완료일 - 2021. 03. 08. 게재확정일 - 2021. 03. 12.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0326)

++ 주저자(oseun@hanyang.ac.kr),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syeonh@hanyang.ac.kr),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조교수

1. 서론

결혼만족도는 흔히 첫 자녀 출생 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는 시기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진경, 2014).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은 주로 직장생활이 점차 바빠지는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가사 및 육아부담을 아내에게 일임하기 쉽다. 이렇게 부부 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맞벌이 아내는 역할 과중으로 인한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아내의 역할 부담이 감소하며 이러한 역할 부담의 감소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혜선, 2003; 황정해, 2006; 이인정, 2015; 김소정, 2016; 윤기봉·지연경, 2017; 이여봉, 2017; 김혜성·그레이스 정, 2019).

이처럼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아내와 남편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참여율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른 변수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본인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대 수준 충족에 따라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여봉, 2010). 가족 내 노동 분업에 대한 이론들 중 하나인 가용시간론과 상대적 자원론의 대표적인 접근인 경제적 의존성에 따르면 유급노동 시간에 따라 가정 내 노동의 시간량이 결정되며, 부부의 소득 차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임금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가족 내 노동분업이 달라진다(Brines, 1994; Davis and Greenstein, 2004).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부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의 차이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자원 중 하나로 이러한 상대적 자원의 차이는 가족 내 노동 분업에 대한 협상력에 영향을 미쳐 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지위에 있는 이는 배우자보다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커지게 된다(임인숙 외, 2010; 허수연 외, 2019; Kamo, 1988; Davis and Greenstein, 2004). 즉 교육, 수입, 직업 위세 등 개인적 자원의 보유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떠넘길 수 있다(임인숙 외, 2010).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양

육에 대해 낮은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적게 참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만족도는 클 수 있다. 김미령(2011)의 논문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 내 노동참여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취업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내가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남편의 주말 가정 내 노동시간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아내가 비취업상태인 경우에는 남편의 가정 내 노동시간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미령, 2011). 이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아닌 남편의 가정 내 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가정 내 노동 내에는 가사노동시간과 자녀양육시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내의 취업상태만을 고려했을 뿐 부부의 상대적인 고용형태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내가 취업을 하였더라도 남편이 취업상태인 가정과 남편이 비취업상태인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이더라도 부부의 고용형태가 같은 가정과 부부의 고용형태가 차이나는 가정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기대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절대적인 취업상태보다는 부부 간의 상대적인 고용형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녀양육시간량과 주관적인 양육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부부 각자의 자녀양육참여시간을 고려한 상대적인 자녀양육참여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조혜선, 2003; 유계숙, 2011; 윤기봉·지연경, 2017; 최혜진, 2018; 김혜성·그레이스 정, 2019). 상대적인 참여 정도는 절대적인 참여 정도보다도 가족 내 성별불평등을 더욱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An, 2015).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남편의 상대적인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참여율과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부부 관계를 포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부부라는 이차적 관계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선호로 정의할 수 있다(조혜선, 2003; 조운주 외, 2012).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결혼만족도는 주로 신혼기에 가장 높아졌다가 자녀 출산 이후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시기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최연실 외, 2015). 결혼만족도가 신혼기에는 높다가 자녀 출산 이후에 감소하는 현상은 결혼만족도에 대한 여러 이론들 중 역할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역할이론은 부부 각자가 아내 혹은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등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조정문·장상희, 2001). 이 이론에서는 부부의 역할조화와 상대방의 역할실행의 질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Bahr et al., 1983).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부부 혹은 부모로서의 역할 간의 갈등과 역할과중이 결혼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서광희 외, 1993; 조정문 외, 2001에서 재인용). 첫 자녀 출산 이후의 부모전이기는 다른 가족주기보다도 역할에 대한 자각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부모로서의 역할자각과 부담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진경, 2014). 과거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도 생계부양자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남성들은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났지만 생계부양자 역할을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면서 남성에게 아버지역할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최연실 외, 2015). 즉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는 중요해졌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한다면 직장인과 부모의 역할 간 갈등도 줄어들고 부부의 역할조화가 잘 이루어져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절대적인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이나 혹은 상대적인 자녀양육분담률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분담 정도는 부부가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질 수 있다(이인정, 2015). 그렇기에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나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 로도 측정할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양육참여나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신나리, 2013; 김진경, 2014). 김혜성과 그레이스 정(2019)의 연구에서도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양육 부담 증가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편이 양육참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윤기봉 · 지연경, 2017).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남편의 실질적인 참여정도보다는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 정도나 이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실질적인 자녀양육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편의 양육참여정도에 비해 더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 모두의 자녀양육참여 시간을 고려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을 독립변수로 삼고 이러한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생활시간 데이터는 기준 요일에 따라 사용된 시간의 분포가 매우 다르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평일 생활시간은 주로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주말에는 여가나 가족과 관련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김진욱 · 고은주, 2014).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자녀양육참여율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족 내 노동 분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상대적 자원론, 젠더 수행론 등이 있다. 협상에 따른 경제적 교환론에 논리적 근간을 두고 있는 상대적 자원론은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이가 가족 내 노동 분업에 대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무급노동을 적게 한다고 주장한다(Kamo, 1988; Davis and Greenstein, 2004). 상대적 자

원론의 대표적 접근인 경제적 의존성은 부부의 소득 차가 클수록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개념으로 임금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경제적 의존도에 따라서 가족 내 노동 분업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안미영, 2016; Brines, 1994). 상대적 자원은 경제적 의존성 외에도 교육수준이나 직종, 고용형태의 상대적 차이로도 조작화 할 수 있다. 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지위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대한 협상력에 영향을 미쳐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허수연·김한성, 2019). 한국 맞벌이 부부의 양육참여와 분담정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용형태가 동일한 부부의 돌봄노동시간은 남편 23.6분, 아내 54.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2.3배 더 돌봄노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형태가 동일하지 않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노동시간은 남편 15분, 아내 57.9분으로 아내가 3.9배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미영, 2016).¹⁾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가 동일한 맞벌이 가정보다 고용형태가 동일하지 않은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돌봄노동참여율이 더욱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부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부의 고용형태는 부부권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lford와 Friedland(1985)에 따르면 부부권력은 부부 각자가 가진 개인적 자원과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적 권력, 부부 외의 가족 및 친지의 태도, 직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권력,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적 권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이여봉,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부부권력의 여러 유형 중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는 상황적 권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권력은 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의 절대적인 양, 즉 부부 각자가 가지는 교육수준, 수입, 직업위세 등이 다양하게 부부권력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부부권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가진 자원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김홍은, 1986). Michel(1967)과 Oppong(1970)의 연구를 통해 부부의 직업위세가 부부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육, 수입, 직업 위세 등

1) 돌봄노동시간은 자녀양육시간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돌보는 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시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부부의 자녀양육분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부부의 돌봄노동시간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부부의 자녀양육분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적 자원의 보유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떠넘길 수 있다(임인숙 외, 2010).

이러한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지위에 놓여있는 이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본인의 기대 충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개인의 기대 수준 충족에 따라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여봉, 2010). 따라서 고용지위가 동일한 맞벌이 부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지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정 내 노동 분업에 대한 이론인 젠더 수행론은 앞선 이론들과 달리 각 구성원의 노동시간과 소득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가정 내 노동분담 수준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이유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제공한다. 젠더 수행론은 가정 내 노동에 대하여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임금이 남편의 임금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내의 임금 상승에 따라 남편의 가정 내 노동 시간이 증가하지만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을 넘어서면 남성성이 훼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정 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엄규숙·황석만, 2019, Greenstein, 2000). 젠더수행론에 따르면 가정 내 노동 분업에 대한 경제적 협상력이 성역할 인식의 영향으로 인해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안미영, 2017).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 지위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돌봄노동 시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남편과 함께 사는 정규직 아내가 정규직 남편과 사는 비정규직 아내보다 경제적 협상력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포함한 돌봄노동 시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안미영,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지위의 상대적 차이 중에서도 남편보다 아내의 고용지위가 더 낮은 경우에만 부부의 고용지위가 동일한 경우보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가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1: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과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고용형태에 있어 아내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지위에 있을 경우,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보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연구가설 4: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과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고용형태에 있어 아내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지위에 있을 경우,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보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이 부부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5차년도 자료(2012년 조사)를 사용하여 연구가설과 연구질문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078명을 패널로 구축, 이들의 양육과 발달,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자료로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육아지원정책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측정하고 있다(김은설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에 참여한 1,754가구 중 부부가 동거하고 있으며 오직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285가구의 맞벌이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맞벌이 가구 선정 시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하였으며 휴직 상태가 아닌 재직 중인 경우만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2) 분석도구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통해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측정하였다.

(1) 종속변수: 남편의 결혼만족도, 아내의 결혼만족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5점 척도(매우불만족=1~매우만족=5)로 측정된 4개 문항을 모두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최솟값은 4, 최댓값은 20이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②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③ 귀하는 아내(남편)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④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아버지)로서의 아내(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 연구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모두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0.93,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0.90이다.

(2) 독립변수: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

자녀양육시간에는 밥, 간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의 자녀 돌봄 시간과 자녀와의 놀이 및 학습시간이 포함된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은 부부의 자녀양육참여 시간을 남편의 자녀양육참여 시간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아내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남편의 상대적인 자녀양육참여 정도로 조작화 하였다. 남편이 전혀 자녀양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 값은 0으로 측정되며 아내와 동일한 비율로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면 0.5, 아내는 전혀 자녀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남편만이 자녀양육에 참여할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 값은 1로 측정된다. 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의 최솟값은 0.00, 최댓값은 0.67,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의 최솟값은 0.00, 최댓값은 0.86으로 확인되었다.

(3) 조절변수: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

부부의 고용형태는 현재 재직 중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정규직,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부부의 고용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 모두 정규직이거나 모두 비정규직으로 부부의 고용형태가 차이가 없는 경우²⁾와 남편은 정규직이나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 남편은 비정규직이나 아내는 정규직인 경우로 나누었다. 분석을 위하여 부부의 고용형태가 차이가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2개의 가변인으로 변환하였다.

(4) 통제변수

부부 각자의 연령과 부부 개인의 교육수준, 자녀 수, 개인대리양육자 여부, 부부 각자의 양육스트레스, 아내소득비율,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을 통제변수로 모델에 투입하였다. 부부 각자의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아내의 경우 최솟값은 25, 최댓값은 45로 확인되었으며, 남편의 경우 최솟값 26, 최댓값 48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중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남녀 모두 1%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녀 수는 가구원 수 변수에서 부부 두 명을 제외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오직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 변수에서 부부 두 명을 제외한 값을 자녀 수로 정의할 수 있다. 자녀 수의 최솟값은 1, 최댓값은 3으로 확인되었다. 개인대리양육자 여부는 부부 이외에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금 또는 현물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개인대리양육자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대리양육자 모두를 포함하여 개인대리양육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로 그렇지 않다면 0으로 재코딩하여 모델에 투입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측정된 11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최솟값 1.00, 최댓값 4.27,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최솟값 1.00, 최댓값은 4.09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2)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정규직인 경우와 부부 모두 비정규직인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부부 모두 비정규직인 경우는 오직 4쌍으로 확인되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②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자신이 없다. ③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④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⑥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 ⑦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⑧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⑨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⑩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⑪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0.87,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0.87이다.

상대적 소득은 부부권력의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분담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소득을 전체 가구소득에 대한 아내의 소득 비율인 아내소득비율로 측정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은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중 하나이다. 유급노동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과 1일 평균 왕복 통근시간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아내의 유급노동시간만을 모델에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에 응답한 1,754가구의 부부 중 부부가 동거하고 있으며 오직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285가구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카이제곱검정과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남편의 자녀양

육참여율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기존의 독립변수나 조절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가 필요하다(김두섭·강남준, 2008; Aiken et al., 1991). 평균중심화 방법은 문제되는 변수의 평균과 각 응답 간의 차이로 만든 편차(deviation)를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과 문제가 되는 변수를 표준화시켜 표준화 점수(z-score)를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김두섭·강남준, 2008; 김원표, 2017). 평균중심화를 시행하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과 원래의 변수와의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김원표, 2017). 이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을 각 관찰값에서 평균값을 빼는 방법으로 평균중심화를 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1>은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분포를 요약한 표이다. 분석대상인 285가구의 맞벌이 부부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내의 평균연령은 34.98세, 남편은 37.37세로 아내의 평균연령이 남편의 평균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비율과 대학교 졸업 비율의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아내가 남편보다 전문대 졸업 비율이 높으며 아내보다 남편의 대학원 졸업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아내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 비율이 21.75%에 달했으나 남편의 경우 오직 3.86%만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맞벌이 여성이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직장 내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우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이외에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개인대리양육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27.02%가 양육을 도와주는 개인대리양육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급노동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72.98%나 되어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아내의 소득비율 평균은 0.40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비교적 아내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내의 평일 유급노동시간과 아내의 주말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아내의 평일 유급 노동시간은 1일 평균 8.94시간, 아내의 주말 유급노동시간은 1일 평균 1.22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경우 평균 2.72, 남편은 평균 2.44로 남편보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율은 평일의 경우 0.28, 주말의 경우 0.39로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는 아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직까지 자녀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14.64, 남편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15.79로 다른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이 남편보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분포

변수	아내	남편
연령	34.98(3.64)	37.37(3.9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20.35%	20.35%
전문대 졸업	25.61%	16.84%
대학교 졸업	42.11%	43.16%
대학원 졸업	11.93%	19.65%
고용형태		
정규직	78.25%	96.14%
비정규직	21.75%	3.86%
개인대리양육자 여부		
없다	72.98%	
있다	27.02%	
자녀 수	1.88(0.61)	
아내소득비율	0.40(0.15)	
아내의 평일 유급노동시간	8.94(1.92)	
아내의 주말 유급노동시간	1.21(2.95)	
양육스트레스	2.72(0.64)	2.44(0.60)
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	0.28(0.17)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	0.39(0.15)	
결혼만족도	14.64(3.12)	15.79(2.63)

2)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 특성

다음 <표 2>는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 특성을 살펴본

<표 2>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분포

변수	부부 고용형태 동일 (77.19%)	남편 정규직- 아내 비정규직 (20.35%)	남편 비정규직- 아내 정규직 (2.46)	$\chi^2 /$ F-value	사후검증 (Bonferroni) ³⁾
아내의 연령	34.98(3.58)	34.93(3.59)	35.57(5.88)	0.10	-
남편의 연령	37.39(3.87)	37.22(4.28)	38.14(3.72)	0.18	-
아내의 교육수준				22.34 ***	-
고등학교 졸업	15.45%	34.48%	57.14%		
전문대 졸업	25.45%	25.86%	28.57%		
대학교 졸업	44.09%	37.93%	14.29%		
대학원 졸업	15.00%	1.72%	0.00%		
남편의 교육수준				17.36 ***	-
고등학교 졸업	16.82%	29.31%	57.14%		
전문대 졸업	15.00%	22.41%	28.57%		
대학교 졸업	45.45%	37.93%	14.29%		
대학원 졸업	22.73%	10.34%	0.00%		
개인대리양육자				11.74 ***	-
없다	68.18%	87.30%	100.00%		
있다	31.82%	12.70%	0.00%		
자녀 수	1.86(0.63)	2.00(0.53)	1.43(0.53)	3.16 **	a=b/a=c
아내소득비율	0.43(0.14)	0.26(0.14)	0.40(0.13)	34.01 ***	a/b=b/c
아내의 평일 1일 평균 유급노동시간	9.26(1.55)	7.59(2.54)	9.86(1.57)	20.92 ***	a/b=b/c
아내의 주말 1일 평균 유급노동시간	1.14(2.88)	1.17(2.76)	3.86(5.34)	2.92 *	a/c=b/c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	2.70(0.65)	2.79(0.59)	2.91(0.67)	0.86	-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	2.41(0.59)	2.58(0.62)	2.48(0.70)	1.94	-
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	0.28(0.16)	0.25(0.18)	0.39(0.13)	2.33	-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	0.40(0.15)	0.38(0.15)	0.36(0.17)	0.41	-
아내의 결혼만족도	14.60(3.16)	14.78(3.15)	14.71(1.25)	0.07	-
남편의 결혼만족도	15.85(2.61)	15.60(2.77)	15.43(1.81)	0.28	-

* $p < 0.1$, ** $p < 0.05$, *** $p < 0.01$

3)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에서 a는 부부고용형태동일율, b는 남편 정규직-아내 비정규직율, c는 남편 비정규직-아내 정규직율을 의미한다.

표이다.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주요 변수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분석과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개인대리양육자 여부, 아내소득비율, 아내의 유급노동시간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개인대리양육자 여부를 살펴보면 부부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에 개인대리양육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2%로 다른 맞벌이 부부보다 크게 높았으며 남편은 비정규직이고 아내는 정규직인 맞벌이 부부가 개인대리양육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00%로 가장 낮았다. 아내소득비율의 경우에는 부부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 0.43으로 전체소득 대비 아내의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편은 정규직, 아내는 비정규직인 맞벌이 부부의 아내소득비율이 0.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내의 평일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남편은 비정규직이고 아내는 정규직인 경우 9.86시간, 부부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9.26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는 7.59시간으로 다른 유형의 맞벌이 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아내의 주말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부부 고용형태가 동일한 맞벌이 부부와 남편은 정규직, 아내는 비정규직인 맞벌이 부부는 각각 1.14시간, 1.17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비정규직이고 아내는 정규직인 경우에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3.86시간으로 확인되어 남편은 비정규직이고 아내는 정규직인 경우 다른 맞벌이 부부에 비해 아내의 주말 유급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자녀양육참여율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정한 연구모형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총 변화량의 약 21%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value= 7.13, 수정된 R²= 0.21). 회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평일, 주말 양육참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남편의 평일과 주말 양육참여가 증가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모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0.11이다(F-value= 4.00, 수정된 R²값= 0.11).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오직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가설 2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아내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B	β	B	β
상수	20.96 ***		21.40 ***	
아내의 연령	-0.06	-0.07	-0.02	-0.03
남편의 연령	-0.02	-0.03	-0.01	-0.01
아내의 교육수준	0.09	0.03	0.17	0.06
남편의 교육수준	0.37 *	0.12	0.10	0.04
개인대리양육자 여부	0.39	0.06	-0.43	-0.07
자녀 수	0.56 *	0.11	-0.03	-0.01
아내 소득비율	-0.60	-0.03	0.03	0.00
아내의 평일 유급노동시간	-0.12	-0.07	0.01	0.01
아내의 주말 유급노동시간	-0.02	-0.02	-0.02	-0.02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1.35 ***	-0.28	-0.81 ***	-0.20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0.38	-0.07	-1.17 ***	-0.27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 (준거집단=부부고용형태 동일)				
남편정규직-아내비정규직	0.43	0.06	0.09	0.01
남편비정규직-아내정규직	1.29	0.06	0.24	0.01
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	2.86 ***	0.15	-1.45	-0.09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	3.42 ***	0.16	1.50	0.09
R ²	0.25		0.18	
수정된 R ²	0.21		0.14	
F	5.96***		4.00***	

*p<0.1, **p<0.05, ***p<0.01

4)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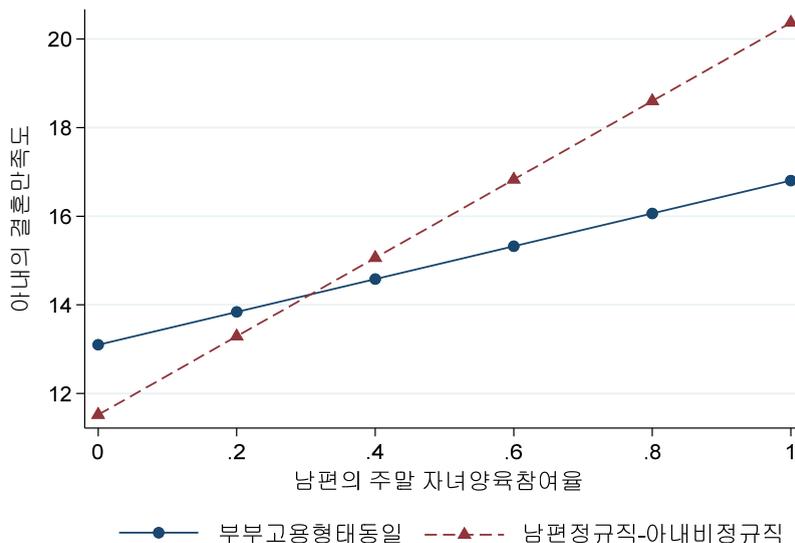
〈표 4〉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아내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B	β	B	β
상수	21.02 ***		21.08 ***	
아내의 연령	-0.06	-0.07	-0.02	-0.03
남편의 연령	-0.02	-0.03	-0.01	-0.01
아내의 교육수준	0.13	0.04	0.16	0.06
남편의 교육수준	0.36	0.12	0.08	0.03
개인대리양육자 여부	0.43	0.06	-0.44	-0.08
자녀 수	0.50 *	0.10	-0.01	0.00
아내 소득비율	-0.58	-0.03	0.06	0.00
아내의 평일 유급노동시간	-0.10	-0.06	0.02	0.01
아내의 주말 유급노동시간	-0.01	-0.01	-0.02	-0.02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1.37 ***	-0.28	-0.77 ***	-0.19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0.40	-0.08	-1.19 ***	-0.27
부부의 고용형태 (준거집단=부부고용형태 동일)				
남편정규직-아내비정규직	0.53	0.07	0.06	0.01
남편비정규직-아내정규직	1.75	0.09	0.15	0.01
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	3.51 ***	0.19	-1.18	-0.08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	2.00	0.10	1.88	0.11
남편정규직-아내비정규직*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	-2.15	-0.06	-1.49	-0.05
남편비정규직-아내정규직*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	-3.70	-0.03	-1.55	-0.02
남편정규직-아내비정규직*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	5.58 *	0.12	-0.67	-0.02
남편비정규직-아내정규직*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	4.26	0.04	-6.12	-0.06
R ²	0.26		0.19	
수정된 R ²	0.21		0.13	
F	4.92***		3.22***	

*p<0.1**p<0.05,***p<0.01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모형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0.21로 확인되었다(F-value=4.92, 수정된 R²= 0.21).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상호작용모델에서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와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의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과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상호작용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value=3.22). 그러나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그림 1>⁴⁾은 앞선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남편의 주말 양육참여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Y축은 다른 요인들을 평균으로 통제했



〈그림 1〉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와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의 상호작용효과

4)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는 부부고용형태동일, 남편정규직-아내비정규직, 남편비정규직-아내정규직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본 그래프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남편비정규직-아내정규직은 그래프에 표시하지 않았다.

을 때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의미하며, X축은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을 의미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보다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책임성과 비책임성 자녀양육으로 나누어 남성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확인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책임성이 높은 자녀양육 항목에 있어서는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지영, 2017). 즉 아내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녀양육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이 자녀양육을 분담하더라도 여성과 달리 남성은 주로 보조적인 영역에서 자녀양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의 학습지도나 등·하원, 식사 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양육영역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며 남성의 경우 실외놀이나 외출, 단순히 함께 있기와 같은 보조적이고 일회성인 양육에 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영

환, 2008).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경우 아내와 달리 자녀양육참여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따라 결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평일 자녀양육참여율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남편의 주말 자녀양육참여율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급노동을 위하여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정체성이 강화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가 적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육자로서의 역할정체성이 강화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와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에만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보다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해 비교적 공동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내는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해 아내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하여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대한 종단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도남희 외, 2018).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비정규직 비율은 3.96%에 불과한 것에 비해 아내의 비정규직 비율은 20.43%로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고용지위가 하락하는 모성벌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성벌칙은 경력단절 등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직장에서 겪는 차별과 손실을 의미한다(양현순·박재완, 2016).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전의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 비율 82.0%, 임시일용 비율은 12.5%로 확인되지만 경력단절 이후에는 상용직 비율은 42.8%

로 감소하고 임시일용 비율은 29.1%로 증가하였다(김난주, 2016). 이처럼 여성은 남성
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 비율이 높으며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50% 미만
인 것으로 확인되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는 단순히 노동시장 내에서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영향을 미쳐 가정 내 권력을 약화시킨다(허수연, 2008). 이
러한 가정 내에서의 권력은 부부의 무급노동분담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은 매우 중
요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율의 영향력은 특히 부부의 고용형태가 동일한 경우보다는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
내는 비정규직인 경우에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고용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용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아내의 자녀양육에 대한
협상력이 남편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지위의 차이로 자녀양육
분담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 아내가 자녀양육분담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 경우에 남편
의 자녀양육참여율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의
결혼만족도라는 개인의 정서적 만족이 남편의 행동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지위격차는 가정 내에서의
권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권력의 차이는 결국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 내 권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에게 전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등하지 못한 양육분담으로 인하여 결혼만족도는 감소하
고 부부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장
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 격차를 줄여 가정 내에서의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 지는
상황, 더 정확히는 가정 내 권력이 지나치게 남성에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를 줄이고 부부의 가정 내 권력을 평등하게 하여 가정 내
권력이 높은 이가 그렇지 못한 상대방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방지하
여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양육분담으로 인한 부부의 갈등이 감
소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양육이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책임
져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그저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발전해 나아가
야지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자녀양육분담에 대해 ‘협상’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에서 성평등인식은 가정 내 무급노동분배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부부의 성평등인식을 측정하고 있지 않아 부부의 성평등인식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무급노동시간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유급노동시간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아내의 유급노동시간만이 통제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비정규직이고 아내는 정규직인 맞벌이 부부의 빈도가 너무 적어서 부부권력이 여성이 우세한 여성우세형 맞벌이 가정에서의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난주, 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산업관계연구』, 26(2): 1-27.
- 김두섭·강남준, 2008,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경기: 나남.
- 김원표, 2017, 『고급회귀분석: 다시 쓰는 통계분석』, 서울: 와이즈인컴퍼니.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 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경, 2014, “부모기 전이에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1): 1-17.
- 김진욱·고은주,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185-212.
- 김진욱·최영준, 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31-54.
- 김미령, 2011,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여성연구』, 81(2): 69-101.
- 김소정, 2016, “기혼 직장인들의 일가족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201-226.
- 김혜경·강이수·김현미·김혜영·박언주, 2014,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 김혜성·그레이스 정, 2019, “행복한 대한민국의 ‘김지영’을 위하여- 남편의 성역할 태도양육 분담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9(1): 35-64.
- 김홍은, 1996,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2): 179-188.
- 도남희·민정원·왕영희·이예진·김소아·엄지민, 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이정원·김지현·조혜주·박은영·김희수, 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육아정책연구소.
- 신나리, 2013,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생활과학회지』, 22(3): 405-420.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 13-40.
- 안미영, 2017, “자원의 상대성과 가족 내 노동 분배의 젠더 불평등: 한국 유급노동자 부부

- 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4(1): 83-102.
- 양현순·박재완, 2016, “육아기 여성의 전일제와 시간제 선택-모성별칙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151-181.
- 엄규숙·황석만, 2019, “맞벌이 가구 가사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상과인식』, 43(2): 75-102.
- 유계숙, 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 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117-136.
- 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8, 『가족관계학』, 파주: 교문사.
- 윤기봉·지연경,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인간발달연구』, 24(3): 133-153.
- 이동원·함인희·김현주·최선희·김선영, 2001, 『여론조사 한국의 가족문화』, 서울: KBS 한국방송, 한국가족학회.
- 이명신, 2001,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와 가사분담”, 『사회과학연구』, 19(1): 43-78.
- 이여봉, 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이여봉, 2017,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 파주: 양서원.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인정, 2015, “남편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1): 343-370.
- 임인숙·강충구·전병희, 2010, “국제결혼 경로별 부부권력과 부부관계 만족도-경기도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1): 35-63.
- 전기택·김종숙·정성미·이선행·박근화, 2019,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조윤주·한준아·김지현,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3): 33-60.
-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5.
- 주재선·김영란·이동선·정성미·송치선·한진영·이진숙·양준영·손창균·장숙량, 2019,

-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지민웅·조민수, 2014,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제인가? 법정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여성경제연구』, 11(1): 1-31.
- 최연실·고선주·권희경·남영주·양현아·진미정 외, 2015, 『한국가족을 말하다』, 서울: 하우출판사.
- 최혜진, 2018,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녀양육시간 차이”, 『사회보장연구』, 34(3): 195-214.
- 통계청, 2019,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0, 『변화하는 사회의 가족학』, 파주: 교문사.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허수연·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황정해, 2006, “아버지됨(Fathering) 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가정과삶의질연구』, 24(2): 43-60.
- Aiken, L. S. and West, S. G., Reno, R. R. 1996.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lifornia: SAGE.
- An, M. Y., 2015, “Welfare states and care arrangements: Care time mix approach and its application to Japan and Korea.”, *Social Policy & Society*, 16(2): 183-198.
- Bahr, S. J., Chappell, C. B., and Leigh, G. K., 1893,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4): 795-803.
-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Davis, S. N. and Greenstein, T. N., 2004, “Cross-national variation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1260-1271.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322-335.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Michel, A., 1967, “Comparative data concerning the interaction in french and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9(2): 337-344.

Oppong, C., 1970, “Conjugal power and resources: An urban african ex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2(4): 676-680.

Abstract

Husband's Child-rearing Participation Rate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income Coupl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fferences in Employment Status of a Dual-income Couple

Oh, Seongeun

(Department of Sociology, Hanyang University, doctoral student)

Huh, Sooyeon

(Center for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differences in employment status (regular work or non-regular work) of a dual-income coup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child-rearing participation rate and marital satisfaction. This study employs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The study subjects consists husbands and wives of 285 dual-income households in 5th-year data of the PSK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s: First, when husband's participation rate in child-rearing increase, wives ten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However, husband's child-rearing participation rate did not show significant influence 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differences in employment status of a dual-income coup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weekend child-rearing participation rate and wife's marital satisfaction were only significant among dual-income couples that consist of a husband with regular work and a wife with non-regular work. The results imply that women's status in the labor marke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increase the husband's participation rate in child-rearing, which affects the marriage satisfaction of the wife in a dual-income family.

Key Words : dual-income households, differences in employment status of a dual-income couple, husband's child-rearing participation rate, marital satisfaction